

졸업생들의 교양과목 수강의미와 경험담

■ 김영찬 (컴퓨터공학부 00, 07년 2월 졸업, 대한항공 근무)

공대생의 교양 잡담

대학 생활 중 공대생 개그라는 유머가 유행했던 중에 공대생이 구한 “초코파이의 초코 함유량이라”는 개그가 있다. 내용인즉슨, 아래와 같이 파이(π)라는 동음 이의어를 이용해 초코 량을 구하는 내용이다.

$$\frac{\text{초코}}{\text{초코 파이}} \times 100(\%) = \frac{100}{\text{파이}} = \frac{100}{\pi} = 32(\%)$$

실제로 공대생이 장난으로 작성한 것인지 아닌지를 떠나, 이런 이야기를 접할 때면 재미있으면서도 씁쓸한 기분이 드는 게 사실이다. 공대생이라는 존재가 어딘지 모르게 상식(?)을 벗어난 사람으로 취급 받는 느낌이랄까?

공대생이 교양 수업을 듣기에 부담스러운 몇 가지 이유를 꼽아 보자면, 지리적으로 먼 인문대의 위치 라던가, 눈코 뜰 새 없는 과제와 퀴즈 때문에 라던가,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수업을 더 많이 듣고 싶은 욕망 때문이라던가 혹은 정말로 교양 수업의 진행 방식이 익숙치않아 교양 수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교양 수업이 학점 평균을 다 깎아 먹었다고 다시는 교양 수업을 듣지 않겠다면 친구가 생각한다. 그 당시 그 친구는 교양 수업이 재미있었던 나를 “교양 변태”라고 불렀던가?)

학창 시절 이런 저런 이유로 교양 수업을 포기하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양 수업을 계속 결눈질 했던 이유는 나를 좀 더 이해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일 게다. 교양 수업 하나로 무슨 차이가 있나 싶겠지만, 수업을 통해 최소한 해당 분야의 방향은 안내 받을 수 있었고, 억지로나마 공부를 하다 보니 어떤 분야는 슬슬 관심이 가기 시작하면서 미처 내가 몰랐던 기호(嗜好)를 발견 할 수 있었으니까.

얼마 전, 회사 동료들과 우연히 신화에 대해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 그 때 학창 시절 들었던 “신화와 역사” 수업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화를 했다가 “말이 좀 통하는 친구”가 된 것도 최근의 재미난 경험이다.

물론, 교양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다양한 지식이 쌓이는 것도 아니요, 다양한 지식을 쌓는 방법이 교양 수업을 듣는 것 하나만이 아니지만, 적어도 대학 생활 중에는 교양 수업이 가장 편하게 다양한 지식에 대한 접점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덧붙여 우리학교에는 유명한 분들께서도 많이 계시다. (나중에 그런 분들의 수업을 들을 기회가 있을까 싶다)

물론 구조적으로 전공필수 과목이라든지 공대 특유의 커리큘럼 등이 공대생의 교양사랑을 힘들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 구조적으로 힘들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공대 학우 여러분. 비록 전공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한 번쯤은 “교양 변태”가 되어 공대생의 이미지-공대생은 단무지래, 공대생은 말이 안 통해- 를 사뿐히 즈려뺏아 보는 건 어떨까?

2008년 1학기도 마무리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호〈열린 지성〉에서는 교양과목을 주제로 졸업생이 재학생들에게 전하는 교양과목의 의미와 그 경험담을 들어봅니다. 다가오는 2학기 수강편람을 펼칠 때, 선배들의 조언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권화순 (국어국문학과 02, 06년 2월 졸업, 머니투데이기자)

교양수업, 나를 찾는 과정.

내가 대학에 들어왔던 02년도에는 인문대학에 학부제가 처음으로 도입되었을 때였다. 그 때에는 인문대학이 전체로 묶여 1학년과 2학년에는 교양과목과 전공 탐색과목을 주로 듣고 3학년에 들어서야 전공진입이 가능하던 시스템이었다. 당시 학부제의 특성 때문이었는지 1,2학년 때 인문대생의 대부분은 교양과목을 참 많이 들었다. 전공진입의 부담 때문에 소위 말하는 ‘널럴한’ 과목을 즐겨듣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그 보다는 부담 없이(너무 힘들지만 않으면) 좋아하는 분야의 교양 과목을 찾아들었다.

그 당시 나는 사회문제와 문학에 특히 관심이 많았고, 관심분야가 많이 겹치던 같은 과반의 친한 친구와 함께 ‘~명작의 이해’ 과목을 열심히 찾아 들었다. 그 친구와 나는 독일명작의 이해, 프랑스 명작의 이해, 러시아 명작의 이해 등등의 과목을 모두 함께 들었다. 고전이라 불리는 작품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권과 사회상, 철학 관점을 담은 문학 작품들을 접하는 것은 내 지적 욕구를 채워주었을 뿐만 아니라 작품을 읽고 학우들과 토론하는 과정, 발표를 통해 선생님들의 피드백을 갖는 일련의 과정들이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어느 정도 길러주게 해주었다.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수업이 끝난 후에도 함께 수업을 들던 친구와 괴테의 〈친화력〉과 카프카의 〈성〉에 관해 몇 시간씩 열띤 토론을 하던 기억은 지금도 가끔 나를 미소 짓게 한다. 그 때의 그 토론들은 약간의 지적 허영심도 섞여 있었지만 나름대로 진지했고, 뜻뜻했으며,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도 했다.

사회생활 준비를 시작하면서 나는 기자라는 직업을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기자가 지녀야 할 자질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식과 정보를 해석하고 또 깔끔한 문체로 이를 표현할 줄 알아야한다는 점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학과 사회 문제에 관심이 특히 많던 내가 경제전문기자가 될지는 사실 나 자신도 짐작하지 못했던 일이다. 다만, 나는 교양 수업들을 통해서 내가 토론과 지식습득에 관심이 많다는 것과 나의 지적호기심들이 기자라는 직업에 적합하다는 것을 막연하게나마 파악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수업을 듣는 과정 속에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조금이나마 높이고 또 글 쓰는 연습을 했던 것이 지금의 내 생활에서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 때 함께 교양 수업을 들었던 친구의 경우는 대학원에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 그 친구 역시 자신의 책 읽는 방식이나 공부하는 자세에 교양수업 수강의 경험들이 알게모르게 영향을 끼친다고 이야기하곤 한다.

어떤 분야가 돼도 좋다. 특별히 관심이 가는 관심분야여도 좋고, 생소하지만 그저 호기심이 생기는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라면 더 좋다. 전공과 학점에 너무 얽매어 더 큰 의미의 청사진을 제시해 줄 수 있고 나라는 사람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교양과목 수강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후배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사회는 더 많이 열려있고 또 동시에 반대로 더 많이 닫혀있다. 그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이는 바로 자신이 누군가를 스스로 알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든다.



■ 이연미 (조소과 01, 06년 2월 졸업, EBS근무)

내 삶의 연결고리, 교양 수업

시간이 지나가는 속도는 꼭 그 사람의 나이와 같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18살에는 시속 18km, 30살에는 시속 30km 이런 식으로 말이다. 대학시절을 다시 돌아보니 그 말이 틀린 것 같지는 않다. 대학에 입학한지 벌써 7년이나 지났으니 말이다.

꽤 먼 시간이라 그 때의 시간을 기억해내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문득 문득, 불쑥 불쑥 떠오르는 장면들은 축제, 동아리와 더불어 재미있던 수업과 관계된 것들이 많은 듯 하다.

나는 미술을 전공한 터라, 대학을 오기 전까지는 오로지 그림을 그리고, 작품을 만들고 하는 일에만 관심을 쏟고 집중을 해 왔다. 그래서 그런지 대학이라는 넓은 선택의 장에 들어서자 약간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분야를 겪어볼 수 있다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참 신나기도 했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다양한 경험을 해보기로 마음먹었다.

미대 밖의 동아리 가입과 교내의 크고 작은 단체에서의 활동과 더불어 생각한 것이 다양한 교양수업을 들어보는 것이었다. 미술을 전공하는, 소위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외곽으로 생각할 것이라는 선입관이 있는 편이라 미대와는 약간 어울리지 않을 법한(?) 교양수업을 듣게 됐을 때는 다른 학우들의 반응이 좀 재미있기도,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굉장히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나 진화 심리학 수업과 여성학 수업, 그리고 환경과 관련된 교양수업에 대한 기억이 많이 난다. 처음 접해보는 학문들이라 생소하기 그지없었고, 단편적으로 내 생각을 적고 말하고 하는 것들이 쑥스럽기도 했다. 어설픈긴 하지만 직접 연구 과제를 선택해 수행하면서 내 실력의 한계를 느끼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잠자고 있던 역량들을 깨워내는 듯한 느낌이 좋기도 했고, 결과적으로는 내 삶의 연결고리들을 찾아내서 새롭게 삶을 바라보고 행동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된 것 같다. 더불어 수업시간을 통해 만나게 된 다양한 학부의 학우들과 선생님 등 소중한 인연으로 이어져 지금까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인들도 교양수업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중요한 수확이기도 했다.

사회에 나와서도 미대 전공자라는 기준에서 나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나의 모습이 나라는 사람을 한 번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미술을 전공했지만 미술뿐만이 아니라 사회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과 어느 정도의 식견이 있다는 평가는 사실 나에 대한 관심과 호감을 높여, 내가 일을 구하고 실제로 일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됐다.

만약 다시 학교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때에도 예전보다 더 다양한 교양수업을 들으면서 넓은 안목을 쌓고자 노력할 것 같다. 종합대학이라는 기회와 선택의 공간을 충분히 만끽하고 누리면서 말이다. 교양수업이 주는 다채로운 재미와 그 후에 얻게 될 삶과 생활에 대한 덤까지도 기대할 수 있을 테니까.

교양수업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대하여

나는 재일교포 모국유학생으로서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2007년에 졸업하였으며, 같은 해에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대학원에 진학하였다. 이른바 '외국인 유학생' 이자 자연과학도라는 존재가 흔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 또한 자연과학도였던 내가 사회과학도로 전향한 것도 역시 흔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독특한 배경을 지닌 내가 일반적인 교양 수업에 관해 적절한 조언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그래도 자연과학도로서 학부 생활을 지내면서 교양수업이 지녔던 역할은 매우 컸으므로 나의 경험이 다른 학우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야기를 계속하고자한다.

우선 물리학이란 어떤 학문인가? 물리학은 수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자연의 온갖 현상을 해석해내는 학문이다. 어떠한 현상이 주어지면, 그 현상의 인과관계를 수학적 개념으로 표현해낸다. 나는 역학, 전자기학, 양자역학, 그리고 미적분학, 선형대수, 심지어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배웠다. 대학교 3학년 때까지만 해도 나는 이러한 수학적 도구의 사용법을 연마한 다음, 진정한 자연과학도로서 사회에 나갈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학문에 매진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가 속해 있는 사회와 동떨어진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 그 자체에 불만이 있었다. 물리학이라는 학문에는 항상 '사람'이 부재하였다. 나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할수록 인간관계라는 문제가 삶을 영위하는 데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어렵듯이 깨닫게 되었으며, 그러한 문제의 해답을 찾고자 나는 점점 인문학에 대한 목마름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위와 같은 이유로, 나는 교양수업, 그 중에서도 인문과 사회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교양수업을 듣게 되었으며 전공과목만큼 열심히 공부하였다. 특히 관심이 갔던 분야는 철학과 사회학, 그리고 인류학이라는 세 분야였는데, 그것들은 내가 평소에 문제시하고 있던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의 해답을 제시해주는 것처럼 보였다. 물론 깊이 있는 학습이 이뤄진 것은 아니었지만, 일상생활에서 관찰되는 다양한 사회적 현상들을, 다양하고 멋진 개념을 통해서 풀어가며 표현해내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내가 공부하던 물리학과 유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였다. 한마디로 교양수업은 재미가 있었다.

그러한 교양수업이 갖는, 전공과는 다른 장점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나' 자신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하는 기회를 주었다는 것이다. 사람은 역시 자신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갖는 듯하다. 교양수업을 들으면서, 특히 문화인류학 관련 수업을 들으면서, '재일교포'인 나에 대한 문제에 접근하게 되었다. 그 때 처음으로, 나는 학문을 한다는 것이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자 자신을 승화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았다. 물론 단지 호기심만으로 물리학을 하는 것도 좋았다. 그러나 나를 알아가는 인류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관심이 커다란 속도로 커져 버렸다. 당시에는 그 관심의 크기가 물리학에 대한 열정을 능가할 줄은 상상도 못했지만 말이다.

결국, 학부 때 들은 교양수업, 특히 인류학과 관련된 수업을 들은 것이 계기가 되어, 나는 나의 진로마저 바꿔버렸다. 나는 더욱 깊이 인류학을 배우고 싶어진 나머지 물리학과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인류학과 대학원에 진학할 것을 결심했다. 현재는 종족 정체성에 대한 나름의 연구를 이 곳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대학원에서 행하고 있으며, 자신의 문제와 연관시켜 다양한 현상을 풀어가는 과정을 즐기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묻는다. 물리학을 전공했는데 인류학과 대학원에 온 것을 후회하지 않느냐고. 나는 인류학과 대학원에 온 것을 후회한 적이 없으며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다. 그리고 그 디딤돌이 되어주었던 것이 바로 교양수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